

INTERVIEW



조성완 소방방재청 차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방재정책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1 차장님은 박근혜정부의 초대 소방방재청 차장으로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국가방재에 임하는 새로운 각오를 듣고 싶습니다.

- 국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책임지고 있는 소방방재청 차장으로서 그 책임을 막중하게 느끼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 국정철학인 「국민안전, 행복한 국민」을 위해 우리 청의 비전을 「재난에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으로 정하고 국민 중심의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해 봉사할 것입니다.

INTERVIEW

- 특히, 우리가 땀 흘리고 고생하는 만큼 국민들은 편안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자세로 자연 재난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을 구축해 나갈 수 있도록 소방방재청 차장으로서 임무에 충실하겠습니다.
- 또한, 최근 기후변화로 집중호우, 가뭄, 폭염, 폭설 등 극한기상 현상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러한 재난환경에서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무엇보다도 침수나 산사태 피해 우려가 있는 재해취약지역 거주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할 각오입니다.
- 이러한 노력을 통해 소방방재청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존경받는 조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Q.2 박근혜정부의 출범으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국민안전의 시대가 도래하였습니다. 소방방재청에서는 국민안전의 시대에 부응하는 국가방재를 위하여 어떠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지요?

-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가뭄, 폭염, 폭설 등 이상기후 현상이 빈발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과거 100년간 전 세계 평균기온이 0.75도(우리나라 6대 도시* 기준 1.8도)가 상승하는 등 기상이변으로 지구촌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 6대 도시 : 서울, 부산, 인천, 대구, 목포, 강릉

-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대형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매 10년 단위로 3.2배가 증가하고 집중호우 일수(80mm/일, 12시간)도 90년대 18일에 비해 38일로 2.1배가 증가하였습니다. 이 밖에도 기상관측 이래 일강수량이 최고기록을 경신(3일간 587.5mm, '11.7월 서울)하거나 강원 영동지역엔 100년만의 폭설(100.1cm, '11.2월 동해)이 내리는 등 기상이변 현상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우선 미래 기후변화를 예측한 「방재기준 가이드라인」 마련, '14.4월까지 연구 추진 중에 있으며, 도심지역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역별 방재성능 목표 설정·운영」 제도를 지난해 8월에 도입, 올해 6월까지 전국 230개 지자체가 공표하고 동 제도를 운영 중입니다.
- 또한, 침수취약지구 내에 공동구, 지하상가, 도시철도 및 철도 등을 설치하는 경우 침수방지를 위한 계획이나 설계 시에 적용하도록 「지하공간 침수방지를 위한 수방기준」을 마련 운영 중이며,
- 지자체별 풍수해에 대한 기초조사 및 분석을 통해 노출되거나 잠재된 위험요소를 도출하고 피해예방 및 저감을 위한 구조적·비구조적 대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제시하는 방재분야 최상위 종합계획으로서의 「풍수해저감종합계획」을 '05.1월부터 도입·운영 중인 한편,
- 지역별 피해발생빈도, 피해규모 및 피해저감능력 등의 분석을 통해 재난취약요소를 도출하고 자율적으로 개선토록 함으로써 지역의 방재역량 제고를 유도하기 위한 「지역안전도 진단」을 '07.1월부터 매년 실시해 오고 있습니다.
- 자연재해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계획의 확정 또는 허가 등을 하기 전에 재해위험요인을 검토하여 저감방안을 제시하는 사전재해영향성검토협의 제도를 '05. 8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 '09년부터 '08년(2,255억원) 대비 2.6배 규모로 재해예방사업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 5년간 재해 위험개선지구(445개)의 근원적인 위험 해소와 소하천 1,739km를 정비하여 정비율을 제고 하였으며, 국비 신규 지원('09년 우수저류시설, '12년 급경사지·서민밀집위험지역)을 받는 등 재해예방사업 투자를 매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 방재안전분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무원임용령」('13.2월), 「공무원임용시험령」('13.4월) 및 「지방공무원임용령」('13.5월) 개정하여 방재안전직렬을 신설하였고, 방재안전관리 사례·실무 중심의 실무활용형 인재양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14년부터 실시할 계획이며,
 - 재난유형(자연, 인적)에 관계없이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상황관리 핵심기능 위주로 근무를 편제한 13개 협업 기능별 상황관리체계를 개선하여 '13년 여름철 시범운영 하였으며, 관련 규정 개정 후 '14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 도로·하천·산사태 등의 피해가 복합적으로 발생한 지역을 하나의 지구로 묶어 지역·지형 특성 및 시설물간 연계를 고려하여 종합 복구함으로써 재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종합복구제도」를 '12.8월부터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10억 원 이상의 복구사업을 대상으로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정확한 피해원인 분석과 주변여건을 고려한 복구공법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재해복구사업 사전심의」 제도를 '05.8월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이와 더불어 공공시설의 복구비가 300억 원 이상인 지자체에서는 복구사업의 효과성 및 유역·수계별 종합적인 방재성능을 분석·평가하여 방재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개선대책을 수립하고 방재관련 계획과 연계·활용하기 위한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 제도를 '05.8월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재해를 입은 피해주민들을 위해 재해발생 시 부처별로 분산 지원하던 세계·용자 등 간접지원*을 피해신고만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피해주민 간접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13.7월부터 시행하여 피해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실질적 혜택이 지원될 수 있도록 추진 중입니다.
- * 세계 감면 및 납부유예, 건강보험료 및 전기·통신료 감면, 복구자금 용자 등

Q.3 기후변화로 기상이변이 속출하고 이에 대비하는 소방방재청의 역할이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진방재를 위한 기반구축, 기술개발, 인력양성에 필요한 정부의 투자는 여전히 미흡합니다. 이제는 방재분야에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요?

- 최근 사회구조의 복잡·다변화로 재해발생 영역이 다양해지고, 재해로 인한 결과도 사회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지고 있으며, 기후변화 심화와 함께 국민들의 안전복지 기대치 향상 및 수요 증대에 따라 방재분야에 대한 전문성 강화 등 획기적인 투자가 필요한 시점이라 생각합니다.
 - 먼저 선진방재 기반구축을 위해 풍수해저감종합계획과 연계한 상습침수, 붕괴 등의 재해취약요인 해소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및 소하천 정비사업 등 예방사업 투자를 매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 * 재해예방사업 : '11년 5,535억원, '12년 6,535억원, '13년 7,912억원

INTERVIEW

- 우수한 방재기술 개발을 통하여 재해를 사전예측하고 저감하기 위한 기업체의 방재기술 개발을 적극 독려하고 있으며, 우수한 방재기술 개발 시 각종 인센티브의 지원과 매년 방재산업전시회를 통하여 국민에게 널리 홍보하고 있습니다.
 - * 인센티브 : 입찰시 PQ가점 부여, 지방계약법 수의·지명·제한경쟁 입찰 참여
- 그 결과 매년 우수한 방재기술의 개발실적과 판로가 대폭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우수한 방재기술 개발과 보급을 통해 재해저감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 신기술 개발 실적 : '07년~'11년까지 연평균 3.5건/273억, '12년 20건/165억, '13년 22건/500억 매출(예상)
- 이와 더불어 국내외 방재안전관련 실무에 관한 사례·실무 중심의 전문 학위 과정을 개설·운영하여 실무활용형 인재를 양성해 나갈 계획이며, 이를 위해 '14년 1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 또한, 최근 증가추세인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재난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이므로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투자가 필요한 분야로 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운영을 통한 석·박사급의 재해경감활동 고급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며, '14년 기업재난관리 특성화대학원 지원예산으로 2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Q.4 최근 3년간 폭염으로 인하여 28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비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 '05년부터 소방방재청이 총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매년「폭염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상황관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 폭염특보 : 6~9월 일 최고기온(주의보) 33℃, (경보) 35℃ 이상이 2일 이상 지속 예상
- 폭염특보가 발령되면
 - 철저한 상황관리와 중앙부처간 또는 중앙과 지자체간 업무협조 강화 및 폭염대비 취약계층 특별 보호대책을 추진합니다.
- 폭염종합대책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복지부) 폭염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및 폭염피해 감시체계 운영
 - 폭염특보 시 독거노인, 거동불편자 등 취약계층을 직접 찾아가 체크하는「방문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하고
 -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체육활동 등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수업 단축이나 휴교를 실시하고
(고용노동부) 조선·항만 건설현장 등 무더위 휴식시간제(14시~17시) 운영
 - 가장 무더운 시간인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학생·농민·군인·근로자를 중심으로 무리한 야외 활동을 금지하고 3회 이상 시원한 곳에서 휴식하도록 하는「무더위 휴식시간제」운영하고
(무더위 쉼터 현황 : 전국 총 39,789개소 지정, 1,429천명 이용가능)
 - 노인복지관, 경로당 등에는「무더위 쉼터」를 설치하여 동네어르신 휴식공간 제공합니다.

- 폭염대비 현장밀착형 응급구급을 위해
 - 소방방재청에서는 전 구급대에 생리식염수, 얼음팩, 얼음조끼 등 온열질환자 응급구급장비를 갖추고 출동 대기토록 하고 있습니다.
- 그 밖에 보건복지부에서는 폭염환자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간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폭염피해 감시체계를 운영하고,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하절기 전력수급 안정대책 등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 바 있습니다.
- 아울러, 소방방재청은 관계부처 간 상황관리체계를 유지하면서 스마트폰 재난알리미앱, 재난문자 방송서비스(CBS), 언론매체 등을 통해 폭염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적극 홍보하였습니다.

Q.5 차장님께서 바라는 한국방재협회의 역할은 무엇인지요?

- 現 정부는 ‘국민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표방, 그 선결조건으로 ‘안전’을 중시하고 있으며, 서로가 상생하여 개인별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개방, 공유, 소통, 협력을 토대로 하는 정부 3.0을 추진 중입니다.
- 한국방재협회에서도 이에 부합하는 현장중심, 국민중심의 업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 당부하는 바입니다.

방재협회 주요업무

▶ 「방재신기술지정」업무추진 철저

- 최근 신기술 활용도가 높아져 지정건수도 증가하고 있음

구분	계	07년	08년	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45	1	3	3	2	3	19	14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 다양하고 증가추세에 있어 방재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
 - 따라서 국토부, 환경부 등의 산업과 같이 많은 발전을 기대함

▶ 「방재분야 특수전문교육과정」운영 철저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 분야에 대한 전문가 교육(연 7회, 360명)을 보다 내실 있게 추진을 기대함.
 ※ 방재안전대책수립 대행업무 : 사전재해영향성검토, 풍수해저감종합계획, 복구사업평가, 비상대처 계획

▶ 방재분야 정책연구용역 및 R&D 연구 내실있게 추진

- 방재협회에서 추진중인 정책연구용역, 국가 R&D연구개발이 보다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당부
 ※ '13년 R&D 연구 : ①지역특성을 고려한 재해영향 분석기법 고도화, ②급경사지 재해위험도 정밀평가기법 및 지반재해위험지도 개발 등
 ※ 정책연구용역 : 재해지도 활성화를 위한 연구

INTERVIEW

Q.6 차장님께서 자연재해를 담당하고 있는 전국의 방재인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 또는 당부의 말씀은?

-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기상이변은 시기를 가리지 않고 발생하지만 자연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준비와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방재인들이 헌신적으로 노력하다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그동안 방재정책 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신 전국의 방재인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을 가지고 앞으로도 방재정책 발전을 위해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Q.7 마지막으로, 차장님께서 26회로 내무부에서 공직생활을 시작한 이후 소방기술과 행정전반에 폭넓은 경험을 하였습니다. 오랜 재임기간 중에 특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면 하나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 저는 공직생활의 많은 기간을 재난안전 분야에서 근무를 하였습니다. 지금도 기억에 남는 것은 재난안전 분야를 저의 천직으로 선택한 계기입니다. 저는 내무부 소방국 예방과에서 수습사무관으로 공직을 시작하였는데, 당시 소방국장님이시던 조남성 전 충북 부지사님께서 소방분야를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당시에는 패기에 넘친 젊은 공무원으로서 국가에 대한 사명감도 있던 차에 조국장님의 권유에 따라 재난안전 분야에 뛰어 들었습니다.
- 그러나 막상 시작한 소방 분야는 근무여건이 열악하였고 행정직으로서도 선호분야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미국에서는 어린이들이 장래 직업으로 가장 선호하는 것이 바로 소방관이라고 합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소방을 포함한 재난안전 분야가 어린이들의 장래 희망으로 선호되는 직업군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방방재청 조성원 차장(우)과 박성제 본지 편집위원장(좌)